

다크투어리즘 동기가 참여활동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제주 4.3평화공원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s of Dark Tourism Motivation on Participation Activity and Attitude : Focusing on JeJu April 3rd Peace Park

유윤희*

Yu, Yun Hee

Abstract

The present study aims to suggest a new marketing method for development of dark tourism program, by investigating the effect of participants' motivation on their activities. Data were collected from 251 prospective participants of dark tourism and analyzed with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path analysis.

As a result of hypothesis tests, it was found that participation motivation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activity. Daily Escape had effects on viewing, recreational, and experience activities whereas Seeking Newness influenced viewing and experience activities. Education Pursuit only affected viewing activities.

In addition, Value Orientation had effects on viewing and experience activities, while Fellowship influenced recreational and experience activities. Implications of the study regarding redefinition of dark tourism concept and deduction of motivational factors are discussed.

주제어 : 다크투어리즘(dark tourism), 관광 동기(tourism motivation), 참여 활동
(Participation activity), 태도(Attitude)

I. 서 론

관광에 대한 욕구가 기존의 단순관람이나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관광형태에서 최근에는 개성 있고 독특한 관광체험을 기대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김영우, 2004). 더불어 관광지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체험 하는 것을 즐기며 사람들과 새로이 교제하는 등 복합적인 관광이 선호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역사적으로 비극적인 현장을 둘러보며 인류의 부끄러운 역사를 간접 체험하며 반성과 교훈을 얻는 여행인 다크투어리즘(Dark tourism)이 주목받고 있다. 1996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여 꾸준한 관심을 받아오다가 2001년 9·11테러 이후 관광객의 시선을 집중시킨 다크투어리즘은 역사적 사건을 통해 교훈을 얻고 배움을 얻고자 하는 지식 추구형 관광객의 증가와 더불어 더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추세이다.

일반적으로 관광산업이란 테마파크나 유명 관광 종합 단지처럼 수많은 관광 매력물과 기반시설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투자비용을 필요로 하지만 다크투어리즘은 타관광산업과는 달리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매력성을 가지게 되므로 인위적인 시설이나 대규모의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이 과거의 진실된 사실만으로도 대규모 관광수요를 창출 할 수 있다. 아픈 과거의 자취를 돌아보며 스스로 반성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그 속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다크투어리즘은 사업적 측면에서 본다면 관광지의 과거사건 외에 별다른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아도 충분한 관광 수요를 자극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다크투어리즘을 다룬 연구는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며, 다크투어리즘 참여자들의 특성이나 동기 욕구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상태다. 또한 다크투어리즘을 관광시장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시장 특성을 분석·이해함으로써 효과적인 마케팅 활동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극심했던 비극적인 제주4·3사건을 추모하기 위해 설립된 제주4·3평화공원을 대상으로 다크투어리즘 관광동기에 따라 참여활동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 가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세부 연구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다크투어리즘 관광동기의 차원을 파악하고 이 차원들이 참여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다크투어리즘 관광동기가 제주 4.3평화공원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제주 4.3평화공원의 효과적 운영 및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다크투어리즘 개념과 유형

1990년대 중반부터 미국, 유럽 등에서 활발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다크투어리즘은 그 용어 측면에서는 1966년에 처음 등장했지만 2000년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칼레도니언 대학 말콤폴리(Malcolm Foley)와 존 레논(John Lennon)을 통해 학술적으로 제기되었다. 다크투어리즘은 사전적 의미로는 ‘전쟁·학살 등 비극적 역사의 현장이나 엄청난 재난과 재해가 일어났던 곳을 돌아보며 교훈을 얻기 위하여 떠나는 여행을 일컫는 말’이다(네이버 백과사전). 죽음·비극·고통·재앙과 관련된 실제 혹은 상품화(재현)된 장소에 대한 방문객들의 소비라고 정의(Foley & Lennon, 1996)되는 다크투어리즘은 사거(死去)관광(thanatopsis), 노예관광(slavery tourism), 블랙 투어리즘(Black Tourism), 그리프 투어리즘(Grief Tourism)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1996년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라는 잡지의 특별 호에서 ‘Dark Tourism’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되면서 관광분야에서는 가장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크투어리즘에는 ‘역사’라는 개념이 많이 반영되고 있다. ‘반인륜적인 행위로 얼룩진 역사현장에서 교훈을 얻기 위한 여행’, ‘보통 여행과는 달리 역사의 참상을 돌아보며 자기반성과 교훈을 얻기 위해 떠나는 여행’, ‘역사의 참상을 돌아보며 자기반성과 교훈을 얻는 것’, ‘역사적 비극 및 재난의 현장을 찾아 자기성찰과 교훈을 얻는 여행’, ‘재난이 일어났거나 역사적으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곳을 방문, 교훈을 얻는 여행(관광·방문 등) 등이 이런 역사적 개념을 강조한 정의들이다(김현식, 2014). 역사와 반인륜, 참상, 비극, 재난이 결합한 공간이 다크투어리즘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밖에 비극적인 현장이나 재앙지를 방문하는 여행의 형태(Trotta, 2006)인 Grief tourism(슬픔의 관광), 아프리카와 카리브해를 중심으로 짝이 트고 있는 Slavery tourism(노예관광), Extreme tourism(극한관광), 그리고 Dangerous tourism(위험관광)도 다크투어리즘의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는 등 그 영역의 경계는 점점 불분명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The dark tourism Forum, 2005; Trotta, 2006; Shin, 2009).

다크투어리즘은 이처럼 관광의 일반적인 목적인 휴양과 여가선용이 아닌, 큰 재난이 일어났거나 역사적으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현장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자기반성을 하고, 교훈을 얻기 위한 여행으로서, 외국의 예를 들면, 9.11 테러가 발생했던 미국의 세계무역센터 자리(그라운드 제로), 나치의 유대인 학살 장소인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수백만 명의 양민이 학살된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현장, 그리고 원자폭탄이 투하됐던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등이 다크투어리즘의 대표적인 장소가 되고 있다.

2. 다크투어리즘 동기

죽음과 재앙의 장소에 대한 다크투어리즘 동기는 일반적인 관광동기에 관련된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Shin, 2009). Trinh(2009)는 베트남 비무장지대(DMZ)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전적지에 대한 조사에서 '개인적 관여', '전쟁관련 장소 및 전시물에 대한 관심', '교육과 탈일상성', '신기성 추구', '위치 및 편의' 등으로 동기를 도출하였다. Shin(2009)은 목적지 선정에 영향을 주는 다크투어리즘 시장에 대한 시장세분화를 방문객의 동기와 가치를 적용하여 시도하였다. 한국의 비무장지대(DMZ)와 식민지시대의 서대문형무소를 대상으로 하여 방문객의 동기를 확인하였는데, 연구결과에서 정서적 연결, 교육적 기회, 그리고 탈출동기 등 3가지의 변수가 향후 다크투어리즘의 방문의도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표 1> 다크투어리즘 동기에 관한 선행연구

Seaton(1996)	죽음의 공적수행 참관, 대중 혹은 개인의 사망지 참관, 기념관이나 죽은 사람이 기거했던 수용소 관람, 특별한 죽음의 증거자료, 상징물 관람, 죽음의 재연 또는 가상체험
Slade(2003)	국민으로서 국가(nationhood)에 대해 알기 위해서
Strange & Kempa(2003)	교육과 탈일상성
Yuill(2003)	주요 동기:기억과 교육, 매개변수: 미디어
Ashworth(2004)	호기심(The curiosity argument), 정체성(The identity argument), 공포(The horror argument), 공감(The empathy argument)
Cooper(2006)	교육, 기억과 호기심
Trinh(2009)	개인적 관여, 전쟁관련 장소 및 전시물에 대한 관심, 교육과 탈일상성, 신기성 추구, 위치 및 편의
Shin(2009)	감정적 연결, 교육적인 기회, 탈일상성, 호기심
장혜원(2011)	역사성, 일탈성, 유대성, 교육성, 매력성
장애옥 외(2011)	역사인식, 탈일상성, 친목도모, 장소매력

이와 같이 다크투어리즘의 선행연구에서 주요 동기들은 탈일상성이나 새로운 세계로의 경험과 같은 위락적 특징을 보이는 일반 관광동기와는 다르게 교육 및 역사에 대한 기억과 같은 정신적 측면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위의 선행연구의 동기변수를 중심으로 제주 4.3평화공원을 방문하는 방문객의 동기를 도출하여 이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3. 참여활동

참여활동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관광유형에 따라 주요 참여활동특성을 분류하고 그 특징을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Yamazaki, Oyama & Ohshima(1997)의 연구에서는 녹색관광의 활동을 생태보전, 시골 사이클링(rural cycling), 시골지역 음식 및 포도주 만들기, 전원에서 스포츠, 목공예 만들기, 전원 및 농촌생활발견의 활동에 기초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것을 녹색관광이라고 하였다. Cohen(1988)은 모험관광은 인간의 지적, 심리적 사회적인 욕구를 다양하게 충족시키며 체험을 통하여 지식과 경험의 폭을 넓히고 삶의 질을 향상을 도모하는 활동, 직접 경험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능동적인 활동이라 하였다. 한철언(1999)은 스포츠관광은 스포츠를 관람하거나 직접 참여하여 즐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거리공간을 이용하여 메가이벤트(mega-event)의 효율적 이용, 스포츠박물관의 설립요구, 스포츠관광 지역의 특화가 필요함을 통해 레저, 스포츠 관광 활동을 기술하였다. 김홍철(2001)은 테마관광은 롤러코스트, 연극공연, 전시, 영화, 축하공연 등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주요도시의 외곽지역에 위치하며,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이벤트를 제공하는 관광활동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Adier(1985)는 종교(성지순례)관광을 다루고 있는데 대다수가 문화중심지에서 문화관광형태로 이루어지고, 사찰은 교육, 문화관광의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며, 사찰의 역사성, 위용성, 예술성 및 특유한 품격과 특징은 관광객의 목적과 동기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우, 2004)

III. 연구방법

1. 가설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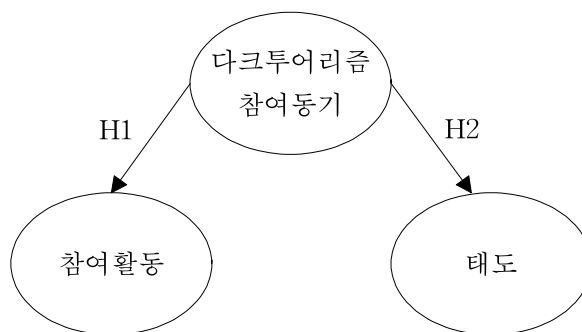
이철우(2000)는 해양관광 참여 동기가 참여활동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에서 해양관광의 관광자 행동에 있어서 활동참여에는 해양관광의 참여 동기가 영향을 미친다

는 결과를 도출하였고, 장호중(2003)은 스포츠 소비자의 참여 동기는 선호 운동종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김영우(2004)는 관광동기가 기존의 과거 획일적인 자연관광, 사회·문화적 관광, 휴양 중심의 관광을 벗어나 자연관광, 휴양 관광은 물론 배낭여행, 테마여행, 역사기행, 스포츠관광, 체험활동 등 세분화된 다양한 관광 활동을 만들어 낸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해 내었다. Mustonen(2007)은 자원봉사관광의 동기와 자원봉사관광 활동성향의 정도에 따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따라 추구하는 활동이 다르다는 것을 도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크투어리즘의 참여 동기가 무엇이나에 따라 선호하는 활동에 미치는 영향의 관계는 달라질 것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다크투어리즘 동기는 참여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Mayo & Jarvis(1981)는 관광행동을 조절하는 결정적인 추동력으로 필요와 동기는 그에 대한 만족을 얻기 위해 행동한다고 주장하였고, 하중완(2005)은 관광동기는 관광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동기에 의한 관광행동은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French, Craig-Smith & Collier(1995)는 사람들이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할 때 욕구와 동기 및 태도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크투어리즘의 참여 동기가 무엇이나에 따라 제주 43평화공원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의 관계는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이것을 규명하고자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다크투어리즘의 동기는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12) 연구모형

2. 조사 설계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다크투어리즘 참가자들의 참여 동기와 다크투어리즘 활동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2015년 5월부터 한 달간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완성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2015년 6월 23일부터 7월 15일 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제주 4.3평화공원을 방문한 경험이 있거나 방문의도가 있는 20대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응답자 스스로 작성하는 자기기입법으로 실시하였고, 표본 추출방법으로는 편의표본추출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 구성을 보면, 다크투어리즘의 참여 동기 설문항목은 장애옥·최병길(2011), 이승곤(2007), Mustonen (2007) Wearing(2004), Jenner (1982)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유대성, 가치지향성, 교육성, 탈일상성 등 총 25개의 문항을 사용하여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참여활동 설문항목은 장혜원(2012), 강은정·이정력(2011), 구자혁·이상건(2007)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12개 문항을 사용하여 조사하였으며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다크투어리즘 참여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항목은 성별, 연령, 학력, 결혼유무, 다크투어리즘 참여횟수 등 8개 항목으로 구성하여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총 300부를 배포하였으며 이중 29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나, 불성실한 설문지를 분석에서 제외시키고 총 273부만을 본 분석에 활용하였다. 통계적 분석은 통계패키지 SPSS 20.0, AMOS 20.0을 이용하였는데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이용하여 파악하였으며 설문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validity)을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과 탐색적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가설검증을 위해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실증분석결과

1. 표본의 인구 통계적 특성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성별은 남성이 153명(56.0%), 여성이 120명(44.0%)으로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연령은 20대가 82명(30.0%), 30대가 108명(39.6%) 40대가

55명(20.1%), 50대가 28명(10.3%)으로서 30대의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크투어리즘은 기존관광과는 다른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형태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서 많은 참가를 하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표 2> 표본의 일반적 특성(n=273)

변수명	설문구성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153	56.0
	여성	120	44.0
연령	20-29	82	30.0
	30-39	108	39.6
	40-49	55	20.1
	50대 이상	28	10.3
결혼여부	기혼	96	35.2
	미혼	177	64.8
학력	고졸이하	44	16.1
	대학졸	183	67.0
	대학원졸	46	16.8
	전문직, 서비스직	73	26.7
직업	사무직, 공무원	39	14.3
	자영업	12	4.4
	학생	96	35.2
	기타	12	4.4
	주부	41	15.0
	200만미만	44	16.1
소득	200~500만	131	48.0
	500이상	90	33.0

2. 측정척도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이용하였다. 요인추출방법은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PCA)을, 요인회전 방법은 가장 널리 쓰이는 베리맥스(Varimax)방법을 이용하였다. 신뢰도는 내적일관성 검정을 통해 신뢰도를 평가하는 Cronbach's Alpha값을 바탕으로 하였다.

다크투어리즘 동기의 경우 25개의 항목 중 문항 제거 시 신뢰도 계수가 높아지고 요인적재량이 0.4이하이거나 중복되는 3문항을 제거 한 23개의 참여 동기 측정 항목이 '탈일상성', '신기성', '교육성', '가치지향성', '유대성'의 5개 차원으로 도출되었다. 전체누적 분산율은 72.312%로 나타났으며, KMO값이 .844,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의 값이 2764.111로 나타났다. Cronbach's Alpha값은 0.817~0.956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표 3> 다크투어리즘 동기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요인명	요인변수	요인적재량	분산설명 (72.312%)	아이겐값 Cronbach's α
탈일상성	스트레스 해소	.833	25.120	6.280 $\alpha=.831$
	심신의 휴식	.793		
	기분전환	.780		
	생활의 활력	.752		
	탈일상성	.691		
	레저	.584		
신기성	자연경관감상	.447	15.851	3.963 $\alpha=.892$
	색다른 문화	.821		
	새로운 지식	.800		
	새로운 경험	.787		
	궁금증	.739		
	지적호기심	.698		
교육성	특별한경험	.695	14.187	3.353 $\alpha=.848$
	자기성장	.775		
	4.3 유물/전시 관람	.759		
	4.3의 가치관공유	.744		
가치지향성	자기개발	.711	9.726	2.431 $\alpha=.817$
	가치있는 행동	.934		
	4.3희생자의 명복추념	.911		
유대성	자기반성	.910	7.428	2.060 $\alpha=.956$
	가족과의 유대	.775		
	친구·동료와의 어울림	.768		
	가족 문화생활	.759		

KMO=.844 , Bartlett 구형성검정 $X^2=2764.111$ α : Cronbach's Alpha 값으로 내적일관성 검정에 의한 신뢰도 계수를 의미함

추출방법: 주성분분석, 회전방법: 베리맥스회전

<표 4> 참여활동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요인명	요인변수	요인적재량	분산설명 (63.536%)	아이겐값 Cronbach's α
관람활동	전시시설 관람	.799	38.489	5.388 $\alpha=.884$
	제주4.3사건 영상관람	.853		
	기념비, 조형물 관람	.848		
휴양활동	오락 활동	.781	15.548	2.177 $\alpha=.770$
	유원지 관광	.758		
	편의시설 방문	.871		
	자연경관 관람	.654		
체험활동	문화행사·이벤트 참여	.903	9.499	1.330 $\alpha=.776$
	방문자 메모 남기기	.924		
	4.3관련 발표, 회의 참석	.814		

KMO=.752 Bartlett 구형성검정 $X^2=1696.045$ α : Cronbach's Alpha 값으로 내적일관성 검정에 의한 신뢰도 계수를 의미함

추출방법: 주성분분석, 회전방법: 베리맥스회전

참여활동의 경우에는 12개의 항목 중 1문항을 제거 한 11개 항목이 ‘체험활동’, ‘휴양활동’, ‘관람활동’의 3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전체 누적분산율은 63.536%로 나타났다. KMO값이 .752,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값이 1696.045로 나타났다. Cronbach’s Alpha값은 0.770~0.884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태도’ 요인은 제주 4.3평화공원 호감도, 제주 4.3평화공원 (재)방문의도, 제주 4.3평화공원 추천의도의 3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요인분석 결과 모두 1개의 요인으로 차원화 되었다. 전체누적 분산율은 90.325%로 나타났으며, KMO 측도 (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값이 .844,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X^2 의 값이 891.383 ($p < .001$)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표 5> 태도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요인명	요인변수	요인적재량	분산설명 (90.325%)	아이겐값 Cronbach’s α
태도	제주 4.3평화공원 호감도	.939	90.325	2.720 $\alpha=.947$
	제주 4.3평화공원 (재)방문의도	.966		
	제주 4.3평화공원 추천의도	.949		

KMO=.844 Bartlett 구형성검정 $X^2=891.383$

α : Cronbach’s Alpha 값으로 내적일관성 검정에 의한 신뢰도 계수를 의미함

추출방법: 주성분분석, 회전방법: 베리맥스회전

4. 가설검증

다크투어리즘 동기가 참여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과 다크투어리즘 동기가 제주 4.3평화공원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다크투어리즘 동기, 참여활동, 태도에 대한 경로모형에 대해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적용하여 적합성을 검증한 결과측정 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는 $p=.015$, GFI=.996 AGFI=.940, NFI=.992, 할 때 RFI=.921, CFI=.995, RMR=.028, RMSEA=.067으로 대부분 일반적인 적합도 기준치와 비교할 때 대체적으로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연구개념들 간의 영향관계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 검증 결과 나타난 적합도 지수와 비교해 볼 때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연구개념들 간의 관계를 결합적으로 설명하는데 좋은 모형임을 알 수 있다.

<표 7> 모형의 적합도

Model fit	GFI	AGFI	NFI	RFI	CFI	RMR	RMSEA
평균권고지수	>.90	>.90	>.90	>.90	>.90	<0.05	<0.05
본 모델 합도	0.996	0.94	0.992	0.921	0.995	0.028	0.067

<표 8> 다크투어리즘 동기가 관광활동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경로			Estimate	C.R
참여동기	참여활동			
탈일상성	→	관람활동	0.366	3.108**
탈일상성	→	휴양활동	0.272	2.122*
탈일상성	→	체험활동	0.231	2.007*
신기성	→	관람활동	0.288	2.444*
신기성	→	휴양활동	0.172	1.452
신기성	→	체험활동	0.294	3.611**
교육성	→	관람활동	0.299	2.861*
교육성	→	휴양활동	-0.109	-1.372
교육성	→	체험활동	0.039	1.137
가치지향성	→	관람활동	0.310	3.637**
가치지향성	→	휴양활동	0.074	1.499
가치지향성	→	체험활동	0.292	2.237*
유대성	→	관람활동	-0.046	-0.607
유대성	→	휴양활동	0.258	2.209*
유대성	→	체험활동	0.272	2.122*

*p<0.1, **p<0.05, ***p<0.01 수준에서 유의함

다크투어리즘 동기와 참여활동과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탈일상성은 관람활동(Estimate=0.366, C.R=3.108, $p<.05$), 휴양활동(Estimate=0.272, C.R=2.122, $p<.01$), 체험활동(Estimate=0.231, C.R=2.007, $p<.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기성은 휴양활동(Estimate=0.172, C.R=1.452)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관람활동(Estimate=0.288, C.R=2.444, $p<.01$), 체험활동(Estimate=0.294, C.R=3.611, $p<.05$)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성은 휴양활동(Estimate=-0.109, C.R=-1.372), 체험활동(Estimate=0.039, C.R=1.137)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람활동

(Estimate=0.299, C.R=2.861, $p<.01$)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지향성은 휴양활동(Estimate=0.074, C.R=1.499)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관람활동(Estimate=0.31, C.R=3.637, $p<.05$), 체험활동(Estimate=0.292, C.R=2.237, $p<.01$)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대성은 관람활동(Estimate=-0.046, C.R=-0.607)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휴양활동(Estimate=0.258, C.R=2.209, $p<.01$), 체험활동(Estimate=0.272, C.R=2.122, $p<.01$)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가설 1]은 채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가설 2] 다크투어리즘 동기와 제주 4.3평화공원에 대한 태도와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탈일상성(Estimate=-0.041, , C.R=-0.586), 신기성(Estimate=-0.023, C.R=-0.226), 유대성(Estimate=-0.01, C.R=-0.003)은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교육성(Estimate=0.319, C.R=4.593, $p<.001$), 가치지향성(Estimate=0.302, C.R=5.522, $p<.001$)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가설 2]는 채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9> 다크투어리즘 동기가 태도에 미치는 영향

경로			Estimate	C.R
참여동기	태도			
탈일상성	→	태도	-0.041	-0.586
신기성	→	태도	-0.023	-0.226
교육성	→	태도	0.319	4.593***
가치지향성	→	태도	0.302	5.522***
유대성	→	태도	-0.01	-0.003

* $p<0.1$, ** $p<0.05$, *** $p<0.01$ 수준에서 유의함

V. 결 론

본 연구는 한국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극심했던 비극적인 제주 4.3사건을 추모하기 위해 설립된 제주 4.3평화공원을 대상으로 다크투어리즘 관광동기에 따라 참여활동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큰 연구목적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주 4.3평화공원의 다크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시사점은 다크투어리즘에 관한 선행연구와 기존의 정의를 바탕으로 다크투어리즘으로서 제주 4.3평화공원의 방문동기를 도출하였다. 즉, 탈일상성, 교육성,

신기성, 가치지향성, 유대성의 5개 동기요인이 제주 4.3평화공원 방문객의 주요 동기로 고려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Strange & Kempa(2003)의 교육과 탈일상성, Yuill(2003) 교육, Cooper(2006) 교육, Trinh(2009) 교육과 탈일상성, 신기성 추구, Shin(2009) 교육적인 기회, 탈일상성, 호기심, 장혜원(2011) 일탈성, 유대성, 교육성, 장애욕 외(2011) 탈일상성, 친목도모 등 다크투어리즘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도 출현한 방문동기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두 번째 시사점은 동기유형의 특성에 따라 다크투어리즘의 내용과 형태가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다크투어리즘 관광객들을 유형화하여 각 유형의 특성에 알맞은 상품개발과 홍보·마케팅이 노력이 필요하다.

다크투어리즘 동기는 참여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활동에 작용하는 동기요인은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무엇인가 배울 수 있으며, 가치있는 일을 하고자 하는 탈일상성, 가치지향성, 신기성, 교육성, 유대성의 동기인 것이다. 참여활동인 체험활동은 일상을 벗어나고자 하는 탈일상성 동기가 높을 때 선호도가 높아지며 관람활동은 일상을 벗어나고자 하는 탈일상성 동기와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배우는 신기성 동기, 그리고 교육성 동기와 자기를 반성하고 가치있는 일을 하고자하는 동기가 높을 때 선호도가 높아진다. 휴양활동은 기분전환, 탈일상성, 가족과의 유대를 위한 동기가 높을 때 선호도가 높아진다. 이러한 결과는 제주 4.3평화공원을 다크투어리즘으로서의 가장 다양한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선호하는 활동은 경건하게 관람위주의 활동을 하는 것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체험활동이었다. 추모의 장소이자 역사적 교훈의 장소인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자연경관이나, 편의시설방문 등의 휴양위주의 관광활동은 다른 활동에 비해 가장 적은 방문동기가 작용하였다. 따라서 제주 4.3평화공원을 대상으로 하는 다크투어리즘에서 관광활동 선호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새로운 문화나 환경 등을 제시하여 탈일상성과 신기성 동기를 자극하고, 배울 거리가 있고,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문화행사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교육성, 가치지향성 동기를 자극하여 각 유형의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이처럼 동기유형에 따라 활동선호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동기요인이 활동선호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난 것은 김영우(2004), Frochot(2005), Mustonen(2007), 김영우(2009), McGehee(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세 번째 시사점은 다크투어리즘의 동기인 ‘교육성’, ‘가치지향성’는 제주 4.3공원을 다시 방문하고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자 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제주 4.3평화공원이 배우고 경험하는 공간으로서 가치가 있음을 시사한다. 제주4.3평화공원은 4.3사건 당시의 기록물들을 통해 역사적 유물을 관람하거

나 역사적 사실을 배울 수 있는 곳이다. 또한 교육활동을 위한 곳으로 중요한 장소로 여겨지고 있으며, 죽음을 공감하고 체험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방문객들은 자기개발, 자기반성의 욕구를 바탕으로 제주 4.3평화공원을 방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탈일상성, 신기성, 가치지향성, 유대성 등 요인들은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방문객이 추구하는 욕구가 현장에서 만족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심신의 휴식, 기분전환, 색다른 문화경험, 지적호기심 충족, 특별한 경험, 가족과의 유대 등 탈일상성, 신기성, 유대강화 등의 욕구가 채워지지 못한 결과로 일반적인 곳과 차별적인 경관, 관광시설, 문화 등에 대한 독창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다크투어리즘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강조한 방문동기가 교육성, 가치지향성(Yuill, 2003; Shin, 2009; 장애옥, 최병길, 2011)이고, 본 연구 결과에서도 방문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크투어리즘 동기로서 교육성, 가치지향성이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제주 4.3평화공원 운영 시 역사에 대한 기억과 이를 통한 교육적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크투어리즘이 반성과 교훈을 얻는 여행인 새로운 관광형태로 기존의 대중관광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다크투어리즘의 참여 동기를 파악하여 동기와 활동선호도간의 영향관계와 차이에 대해 검토하고 다크투어리즘 상품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강은정, 이정렬 (2011). The Dark Tourism Experience : Visitors to The April 3rd Peace Park, South Korea 제주 4·3 평화기념관 방문객 체험 조사 연구. 『관광·레저연구』, 23(7), 547-566.
- 김현식, 양정호 (2014). 다크 투어리즘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적용 방안 연구: 관련 콘텐츠의 설계와 구성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9), 35-50.
- 김영우 (2004). 관광동기 및 위험지각이 관광유형 선택과 관광후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세종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박사학위논문.
- 류주현 (2008). 부정적 자산을 활용한 관광개발의 필요성.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1(3), 67-79.
- 송성진 · 장윤식 (2009). 제주지역 Dark Tourism 활성화 방안. 『2009 제주관광학회 정기학술대회』, 51-67.
- 송재호 · 김향자 (2009). Dark Tourism의 장소로서 민중공원의 개념화에 대한 시론적연구: 국내·외 민중공원 사례를 통한 접근. 『관광연구저널』, 23(1), 71-87.

- 이현중 (2007). 체험활동 동기에 따른 관광목적지 유형선정 연구. 『관광연구저널』, 21(1), 69-81.
- 이후석 (2012). 다크투어리즘 동기 유형에 따른 시장세분화 연구: 거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을 사례로-. 『관광연구저널』, 26(3), 35-50.
- 장애옥·최병길 (2011). 다크투어리즘 방문객의 동기와 특성: 제주 4.3평화공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관광·레저연구』, 23(1), 65-84.
- 장혜원(2012). 다크투어리즘의 스토리텔링 요소에 관한 연구: 제주 4.3평화공원을 중심으로. 『관광연구』, 27(1), 251-273.
- 정병웅·이용규 (2004). 신자유주의 이후의 새로운 관광가치 정립에 관한 연구. 『국제관광연구』, 1, 7-19.
- 한숙영·조광익 (2009). 현대 사회에서의 위험과 관광: 다크투어리즘의 경우. 『한국관광학회 학술 대회 발표 논문집』, 7.
- 현혜경 (2008). 제주4.3의 기억과 다크투어리즘: 사회운동으로의 전망. 4.3과 역사, 8.
- Ashworth, G. J. (2004). Tourism and heritage of atrocity: Managing the herotage of South African apartheid for entertainment. In Singh, T. V.(Eds.), *NewHorizons in Tourism(Strange Experience and Stranger Practices)*. London:
- Brown, S. and Lehto, X.(2005). Travelling with a Purpose: Understanding the Motives and Benefits of Volunteer Vacationers, *Current Issues in Tourism*, 8(6): 470-496.
- Clary, E. G., & Miller, J.(1986). Socialization and Situational Influences on Sustained Altruism. *Child Development*, 57: 1358-1369. *Current Issues in Tourism*, 8(6), pp.479-496
- Cooper, M. (2006). The Pacific war battlefields: Tourist attractions or war memorials?.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Research*, 8(3), 213-222.
- Dann, G. M. S. (1998). The Dark Side of Tourism. *Etudes et Rapports/Studies andReports, Serie Sociology/Psychology/Philosophy/Anthropology*, 14.
- Diem-Trinh, T. L. (2009). Segmenting Visitors to Battlefield sites: International Visitors to the fomer DMZ in Vietnam. A master's thesis of a student of Victoria University.
- Lennon, J. & M. Foley (2000). *Dark tourism: The attraction of death and disaster*. London: Continuum.
- Miles, W. F. S. (2002). Auschwitz: Museum interpretation and dark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29(4), 1175-1178.

- Sharpley, R. (2005). Travels to the edge of darkness: towards a typology of "Dark Tourism". In Ryan, C., Page, S. J. & Aiken, M. (2005). Taking Tourism to the Limits: Issues, Concepts and Managerial Perspective, 215-226. Oxford: Elsevier Ltd.
- Shin, J. Y. (2009). A Study on the Segmentations of Dark Tourism market and their impacts on destination selections, The Graduate School of Sejong University.
- Stone, P. R. (2006). A Dark tourism spectrum: Towards a typology of death and macabre related tourist sites, attraction and exhibition. *Tourism: An Interdisciplinary International Journal*, 52(2), 145-160.
- Strange, C. & M. Kempa (2003). Shades of dark tourism: Alcatraz and Robben island. *Annals of Tourism Research*, 30(2). 386-405.
- The dark tourism Forum (2005). [Online] . Available, <http://www.dark-tourism.org.uk>.
- Yuill, S. M. (2003). Dark tourism Understanding visitor motivation as sites of death and disaster. A master's thesis of a student of Texas A & M University.

2016년 10월 21일 원고 접수

2016년 10월 21일 수정본 접수

2016년 11월 25일 최종 수정본 접수 및 게재확정

3인 익명심사 필